



제목	Writing Religion: The Making of Turkish Alevi Isla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3. 7. 4.
저자	Markus Dressler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323
ISBN 또는 ISSN	978-0199969401

내용 요약

이 책은 주변적인 위치의 사회종교집단인 알레비파가 오스만 제국 후기와 터키 공화국 초기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과정과, 새롭게 형성된 세속적인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정체성에 알레비파가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책의 주된 전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터키의 알레비파가 세속주의적인 터키 민족주의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알레비파가 민족적으로는 주로 투르크인이며 알레비파의 신앙체계가 혼합주의적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터키의 알레비파에 대한 근대의 이러한 지식을 분석하고 맥락화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서구의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터키 민족주의 작가들의 이슬람 개념화 작업과 알레비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저자는 터키 민족주의 작가들이 이슬람을 '표준화된 보편적 종교'의 형식에 끼워 맞추으로써 이슬람은 그 고유의 뉘앙스를 상실했으며 이슬람 내부의 차이들이 잘못된 개념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알레비 역사를 상세하게 연구한 최초의 영어판 연구서라고 평가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알레비파의 질문과 관련하여 터키 민족주의 담론의 역사적, 개념적, 방법론적 배경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아나톨리아의 종교 역사서술의 거장인 푸아트 쾨프뤼뤼(Fuat Köprülü)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종교에 대한 근대적인 접근이 알레비파의 종교적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한다.